

16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6717.97 (+90.71)		815.98 (+3.57)
	금리 (연고액 9만)		환율 (한·달러)
	4.053 (-0.038)		1366.60 (+7.20)

하이닉스, 美 첫 메모리 생산 추진... 합작 법인도

인텔 오하이오 공장 임대할 듯
SK하이닉스 미국 첫 전공정 거점
첨단 D램·HBM 이전 절차 변수
정부 국가핵심기술 심사 받아야

SK하이닉스가 인텔과 미국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텔의 오하이오 공장을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인디애나 고대역폭메모리(HBM) 공장에 이어 미국 내 생산 기반을 넓힐지 주목된다.

16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인텔이 오하이오주 뉴앨버니에 건설 중인 반도체 공장의 일부를 임대하는 방안을 협상하고 있다. 이곳에서 메모리 웨이퍼를 직접 생산할 경우 SK하이닉스의 미국 첫 전공정 거점이 된다.

SK하이닉스와 인텔에 주요 클라우드 업체까지 참여하는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번 논의는 SK하이닉스가 미국에서 추진 중인 HBM 후공정 투자와도 맞닿아 있다. SK하이닉스는 지난달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파예트에서 40억달러(약 5조5000억원) 이상을 투입하는 HBM 어드밴스드 패키징 공장을 착공했으며 2029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디애나 공장은 한국에서 생산한 D램 웨이퍼를 가져와 적층·조립하는 시설이다. 오하이오에서 D램을 생산하게 되면 웨이퍼 제조부터 인디애나의 HBM 패키징까지 미국 내에서 두 공정을 잇는 생



메트로경제 '2026 물류&모빌리티 포럼' 성료

국내 물류·모빌리티 리더들이 인공지능전환(AI)과 녹색전환(GX)을 연계한 지속 가능한 물류·모빌리티의 운송효율 확대에 대한 포럼을 가졌다. 메트로미디어는 16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인공지능전환(AI)과 녹색전환(GX) 지속 가능한 물류·모빌리티'를 주제로 '2026 물류&모빌리티 포럼'을 개최했다.

국내 물류·모빌리티 리더들이 인공지능전환(AI)과 녹색전환(GX)을 연계한 지속 가능한 물류·모빌리티의 운송효율 확대에 대한 포럼을 가졌다. 메트로미디어는 16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인공지능전환(AI)과 녹색전환(GX) 지속 가능한 물류·모빌리티'를 주제로 '2026 물류&모빌리티 포럼'을 개최했다.

/최규춘 기자 ch9720@

산망을 구축할 수 있다. 다만 두 공장의 연계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양사가 이번 협력을 검토하는 배경도 뚜렷하다. 인텔은 오하이오에 280억달러(약 38조7000억원) 이상을 투자해 2개 팹을 건설하고 있지만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다. 첫 번째 공장은 현재 2030~2031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어 SK하이닉스와 협력하면 공장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SK하이닉스는 새 공장을 짓는 대신

인텔 시설을 활용하면 투자 부담과 건설 기간을 줄일 수 있다. 미국 내 반도체 생산 확대를 추진하는 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도 맞물려 있어 협상이 속도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협상은 초기 단계로 구체적 생산 방식과 제품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기술 이전 절차도 변수다. 첨단 D램이나 HBM 관련 기술을 국외 생산시설에 적용할 경우 국가핵심기술 심사를 받아야 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는 미

국 생산 여부는 기업이 결정할 사안이지만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되면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심사가 필요하다고 로이터에 밝혔다.

SK하이닉스는 로이터에 "메모리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 생산 거점 구축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결정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metroseoul.co.kr



metro

애플·미디어텍·퀄컴 차세대 AP 잇단 공개 삼성, 엑시노스로 반격

애플과 미디어텍이 2나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를 잇달아 공개했다. 퀄컴도 이달 하순 신제품을 선보일 예정인 가운데 삼성전자 엑시노스가 점유율 반등세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9일(현지시간) 아이폰용 AP 가운데 처음으로 2나노 공정을 적용한 'A20 프로'를 공개했다. 아이폰18 프로·프로맥스와 첫 폴더블폰인 아이폰 듀오에 탑재된 A20 프로는 전작보다 CPU 성능이 최대 20%, GPU 성능은 최대 40% 향상됐다. AI 연산 성능을 2배로 높이고 아이폰18 프로의 배터리를 3배 확대해 발열 관리 성능을 강화했다.

미디어텍도 지난 15일(현지시간) TSMC 2나노 공정을 적용한 '디멘시티 9600 프로'를 공개했다. 퀄컴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미국 하와이에서 열리는 '스냅드래곤 서밋 2026'에서 차세대 플래그십 AP를 선보인다. 제조 공정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TSMC의 2나노 계열 공정을 적용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삼성전자, 모바일 AP 글로벌 점유율 작년 4분기 5%→올해 2분기 9%로 연초 출시된 갤럭시 S26 탑재 영향

삼성전자도 엑시노스 2600을 앞세워 모바일 AP 시장에서 점유율을 회복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 엑시노스의 글로벌 모바일 AP 출하량 기준 점유율은 지난해 4분기 5%에서 올해 1분기 7%, 2분기 9%로 상승했다.

엑시노스 2600이 올해 초 출시된 갤럭시 S26 시리즈에 탑재된 영향이 컸다. 중급형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엑시노스 1680과 1480의 출하 증가도 점유율 상승에 힘을 보탰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올해 2분기 엑시노스 출하량이 전년 동기보다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엑시노스 2600은 삼성 파운드리 2나노 게이트올라라운드(GAA) 공정으로 생산된다. CPU 연산 성능은 전작보다 최대 39%, 생성형 AI 성능은 113% 높아졌다. 삼성전자는 발열을 외부로 빠르게 내보내는 '히트 패스 블록' 기술도 적용했다.

차기 제품인 엑시노스 2700은 삼성 파운드리 2세대 2나노 공정인 'SF2P'를 기반으로 개발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내년 출시될 갤럭시 S27 시리즈의 엑시노스 탑재 비중이 전작보다 늘어날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엑시노스 2700은 삼성전자 내부 평가에서 퀄컴의 차세대 스냅드래곤보다 일부 성능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metro



metro

정규직 월급 400만원 시대... 비정규직은 절반 그쳐

데이터처, 300만원 넘어선지 8년 만에
올해 평균월급 399만8464원 예상
비정규직 작년 월급 208만원 수준
이르면 올해 정규직의 50% 하회 공산

올해 정규직 근로자 평균임금이 월 400만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 2018년 300만 원대에 올라선 뒤 8년 만이다. 반면 비정규직 평균임금은 정규직의 절반에도 못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같은 관측이 현실화하는 건 단지 시간 문제다. 둘 다 국내 역대 최초의 사례가 된다.

16일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내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정규직 근로자는 월평균 389만6000원을 임금으로 받았다. 이는 전년도인 2024년의 379만6000원과 비교해 2.63% 늘어난 수치다.

올해도 작년과 상승률이 같다고 가정하면 2026년도 임금은 2025년 대비 10만2464원 오른다. 이 경우 399만8464원이 되는데 작년 폭보다 약간 된 3%만 상승해도 400 선을 넘긴다. 앞선 2024년도 임금은 2023년 대비 4.78% 오른 바 있다.

정규직 평균임금은 2007년(200만7000원)에 200만 원을 처음 갠 이후 5~6년마다 약 50만 원씩 증가했다. 2012년(255만1000원)에 250만, 2018년(300만9000원)에 300만, 2023년(362만3000원)에 350만 선에 도달했다.

이 50만 원 단위의 증가 주기는 짧아졌다. 2023년에 350만 대에 들어섰는데 이미 2025년(389만6000원)에 400만에 근접한 상황. 2026년 또는 2027년(3 내지 4년 내)에 50만 원 더 늘어나게 된다.

정규직이란 정년이 보장되는 상용근로자를 뜻한다. 여기에 최고경영자(CEO)와 임원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 임원의 경우, 승진을 해 계약직 신분으로 전환될 시에도 비정규직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이와 같이 정규직 임금은 꾸준한 흐름을 보여 왔다. 이에 반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상승 속도는 매우 더디다.

지난해 비정규직 임금은 208만8000원으로 정규직이 받는 수준의 53.6%에 그쳤다. 이르면 올해나 내년, 늦어도 후년까지 정규직의 50%를 하회할 공산이 크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 첫 사례로 기록되는 것.

2025년 기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180만8000원이었다. 액수 차

는 2024년 174만8000원, 2023년 166만6000원이었다. 정규직이 아닌 탓에 매달 200만 원이나 덜 받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비정규직은 시간제근로자·한시적근로자 등을 가리킨다. 아들에 대한 사회보장 처우 역시 정규직에 크게 뒤진다. 작년 기준 정규직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률이 각각 87.9%, 95.0%를 기록한 데 반해 비정규직은 37.1%, 53.2%에 그쳤다. 퇴직급여 가입률도 '정규 95.6% 대 비정규 46.0%'였다.

데이터처는 다음 달 중순순경 정규직·비정규직의 올해보 월평균 임금을 발표할 예정이다. 둘을 합한 국내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지난해 기준 320만5000원이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메트로 한줄뉴스



- ▲조정식 의장, 카자흐 대통령과 회담... "전략동반자 관계 격상 환영" /사진 뉴시스
- ▲장동혁 "김승원 청문회는 '삼류 배우'의 저질 신파극...임명 안 돼"

- ▲김민석 "진보·보수 전방위 대통합 시동...4통합 등 당내 생각 모을 것"
- ▲이광재 "민주당 다수당일 때 청문회법 바꿔야"...도덕성 검증 비공개 방안 거론

- ▲김종인 "조국·추미애, 다른 생각...李 지지율 하락 원인 냉정히 판단해야"
- ▲산부부, 17일 대미투자 국회 보고 연기요청...18일 MOU도 무산